3년 만의 팔재계 법회…3200포교사 운집

포교사단 9월 24일 법주사서 팔재계수계법회

27기 320여명 포함, 대거 모여
김영석 단장 "적극 포교" 포부
범해 스님 "전법원력 드높이길"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포교사단은 9월 24일 보은 법주사에서 3200여 포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팔재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처를 딛고 다시 한 번 전법포교의 원력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포교사단(단장 김영석)은 9월 24일 보은 법주사에서 제18회 팔재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팔재계수계대법회에는 3200여 명의 포교사들이 참여했으며,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과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 포교원 스님들과 교구본사 스님들이 참석해 이들을 격려했다.

이번 팔재계 수계법회에서는 2022년 고시를 통과한 신규포교사 320여 명을 필두로 1기부터 총 3200여 포교사들이 참여했다.

팔재계 수계법회는 보통 1박 2일간 철야정진을 비롯한 오후불식 등 다양한 정진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회향을 기해 수계가 이뤄지지만 이번 제18회 팔재계 수계대법회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하루로 일정이 짜여졌다. 참석한 포교사들은 오후불식과 함께 〈금강경〉 합송으로 전법 의지를 다졌다. 팔재계 법회에서는 오랜만에 모인 지역단간의 교류도 이뤄졌다.

김영석 포교사단장은 "포교사들은 조계종의 전법포교 일꾼일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가불자의 중추"라며 "앞으로 보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신행포교와 계층포교 활동을 전개해가겠다. 오늘 팔재계 수계법회를 계기로 각자의 위치에서 적극적인 전법포교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그동안 전법활동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각지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활동을 이어온 포교사들이 있어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며 "오늘 팔재계 수계는 단순히 여덟 가지 계율 수지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지계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수행과 전법 원력을 다시 세우는 자리이다. 앞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팔재계수계법회에서는 묵묵히 활약해온 포교사들과 포교사팀을 격려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장상 개인상은 전북지역단 김덕순 포교사, 총무원장상 팀상은 광주전남지역단 북부총괄2 어린이팀이 수상했다.

또 포교원장상 개인상은 서울지역단 김현숙 포교사, 부산지역단 서영우 포교사, 대전충남지역단 길명호 포교사, 강원지역단 이주영 포교사, 울산지역단 조원석 포교사, 제주지역단 이화영 포교사가 받았다. 포교원장상 팀상은 서울지역단 서부총괄 통일포교팀, 부산지역단 지역중앙 군 지국천팀, 대구지역단 동부 불교문화해설 동화팀, 강원지역단 속초총괄 군포교팀, 경남지역단 동부총괄 군포교 가야팀, 경북지역단 동부 지역봉사 자리이타팀에게 돌아갔다.

수계법회 후에는 신임 27기 포교사에 대한 품수식도 이어졌다. 320여 포교사 대표로는 최연소 포교사인 조주연, 한지훈 포교사가 대표로 나와 포교원장 범해 스님으로부터 일반포교사증과 단복을 수여받았다. 이어 윤지홍 신임 포교사를 대표로 전도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원력을 세웠다.

청련사, 생전예수재 세미나 개최

10월 8일 청련사 대적광전에서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와 사단법인 청련사예수시왕생칠재보존회가 10월 8일 오후 2시 청련사 대적광전에서 '경제 동교범패 청련사 범맥과 어장 상진 범음성 세계'를 주제로 불교음악학회 제4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불교 천도의식인 생전예수재의 의미와 역사를 돌아보면서 1200년 전통을 간직한 청련사 예수재의 독창성과 우수성이 집중 조명될 예정이다.

청련사는 20세기 초부터 경제(京制) 동교(東郊)파에 속한 주요사찰로, 1910년 청련사로 출가했던 능해 스님(1892~1979), 덕봉 스님(1911~1994), 청호 스님(1915~1999), 춘담 스님(1915~1960), 벽파 스님(1939~2011), 백우 스님(1934~2015)이 계보를 이어왔다. 현재는 청련사예수시왕생칠재보존회를 이끄는 어장 상진 스님이 생전예수시왕생칠재를 설행해오고 있다.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김영운 국립국악원장을 좌장으로 양영진 국립국악원 학예연구사의 '청련사 예수재와 바깥채비소리 연구', 이용식 전남대 교수의 '청련사 예수재와 안채비소리 연구'가 발표된다. 2부에서는 최종남 중앙승가대 교수를 좌장으로 위재영 국립국악관현악단원의 '청련사 예수재에 수반되는 기악 연구', 고경희 한국춤협회 이사의 '청련사 예수재 작법무 연구' 등이 발표된다.

상진 스님은 "이번 학술 세미나가 생전예수재의 역사문화적 의의를 새롭게 인식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련사는 이에 앞선 10월 4일 청련사 야외법당에서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66호 지정 기념 생전예수시왕생칠재를 설행했다. (031)836-2439 노덕현 기자


美해군 장병의 한국불교 체험 부산에 입항한 美해군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함 승무원들이 9월 25일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에 방문해 사찰음식 체험 등을 진행했다. 한미 우호 증진행사로 진행된 이번 방문에서 승무원들은 참선과 발우공양 등으로 한국불교를 이해했으며 제기차기, 투호 등 전통놀이를 즐겼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한미 동맹을 다지는 의미있는 활동"이라며 "세계평화를 위한 종교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2023대불련 창립 60주년 앞두고 동문 결집 모색

대불련 총동문회 9월 24~25일 제18회 전국동문대회 개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출신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학전법 활성화와 청년불자 지원을 다짐했다.

대불련 총동문회(회장 변대용)는 9월 24일과 25일 무주 태권도원과 백련사에서 제18회 전국동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국동문대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 만에 열린 행사로 400여 대불련 동문과 대불련 회원 학생들이 참여했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최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대불련 동문 선후배들의 원력을 모으는 대학전법센터 건립 불사를 진행 중에 있다. 동문대회에서는 전법센터 건립에 대한 뜻이 새롭게 모아졌다.

변대용 대불련 총동문회장은 "대불련 역사의 60주년을 맞이하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갖고 있는 원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꿈꾸었던 희망이 무엇인지를 떠올린다"며 "동문들의 원력과 후원으로 결집하는 결사 속에 희망이 싹튼다"고 당부했다.

무주 백련사 회주 평상 스님은 "오늘 동문대회에 참석한 대불련 선후배들이 있었기에 한국 불교의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여기 모인 분들이 앞으로도 한국불교의 희망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조석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60년차 회장은 "이제 대불련 법우들 중에는 부모님이 대불련 회원이었던 이들이 늘고 있다"며 "불연이 항상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동문대회에는 400여 대불련 동문들이 모여 원력을 모았다.

이날 대불련 총동문회는 모범적인 활동을 펼쳐온 대불련 동문들에게 자랑스런 대불련인상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故 한정희 여사 출연금으로 조성된 시곡 장학금이 모범적이고 학업이 우수한 대학생 불자들에게 전달됐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복지재단, 난치병 어린이 지원

역대 최고 2억 4천만 원 모금
국내외 아동 29명 후원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난치병을 앓고 있는 국내외 어린이들에게 올해 2억 4000만 원을 지원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9월 22일 서울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제22회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 선정심의를 열고 금액 및 대상자를 선정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9월 30일 진행된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연중캠페인을 통해 총 2억 4000만 원이 모연됐다. 2001년부터 난치병 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해온 이래 최고 모금액이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다양한 질환을 앓고 있는 국내 환아 19명, 라오스 환아 10명 등 총 29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2억 4000만 원 중 1억 2600만 원은 국내 난치병 아동 지원, 6600만 원은 해외 난치병 아동 지원에 쓰인다. 긴급 치료를 위한 예비비로 4800만 원을 배정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아동 나이와 중증, 경제력 정도 등을 고려해 최소 4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은 10월 중 전달될 예정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은 "많은 분들이 애정을 갖고 모금에 동참해 최대 성과를 낸 만큼 더 많은 환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임은호 기자

